

트럼프에 목을 내보였던 대통령의 외교술

태평로

배성규

정치 에디터



작년 8월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은 일촉즉발의 위기였다. 관세 협상은 교착됐고 안보 과제도 넘쳤다. 회담 직전 트럼프는 SNS에 '속칭·혁명 한국에서 비즈니스 할 수 없다'고 폭탄 발언을 했다. 최악의 '노딜'까지 우려됐다.

회담이 시작되자 이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갑자기 목덜미를 내보였다고 한다. 2년 전 흥기 피습을 당한 상처였다. 굳어 있던 트럼프의 얼굴이 확 퍼졌다. 귀에 총탄을 맞아 죽을 뻔한 기억이 떠올랐을 것이다. "상처를 자세히 보자" "괜찮으냐"며 큰 관심을 보였다. 암살 위기를 넘긴 두 사람만의 유대감이 작동하자 협상은 일사천리로 풀렸다. 위기의 순간 '칼의 상처'를 '총알의 기적'으로 연결시킨 임기응변의 외교였다.

한·중 정상회담 댄 시진핑 주석이 선물한 샤오미폰 퍼포먼스가 적중했다. 국내 개봉 후 중국으로 가져가 시 주석 부부와 셀카를 찍은 것이다. "사진 잘 찍는다" "인생 샷 건넸다"는 덕담과 웃음이 오갔다. 선물 당시 '통신 보안' 문제도 빠지는 대화가 오갔던 샤오미폰을 반전의 도우미로 활용한 것이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는 드립을 함께 치며 "평생의 로망을 이뤘다"고 했

다. 직접 제작한 나전칠기 드럼 스틱도 선물했다. 다카이치의 고향에서 두 손을 꼭 잡고 서를 외교의 길을 열었다. 한일 관계 우려도 불식시켰다.

취임 전 '이재명 외교'는 물음표였다. 단체장을 자냈을 뿐 외교 분야 경험은 없었다. 대선 주자 때 "미군은 점령군" "자위대 군함발" "세세" 발언은 우리를 낳았다. 하지만 '침승 외교'로 트럼프와의 첫 관문을 통과했고, 한·중 회담도 웃음으로 마무리했다. 한일 관계의 벽도 넘었다. 탈이남·맞춤형·임기응변의 이재명식 실용 외교가

'칼의 상처'와 '총알의 기적' 유대감 中·日 샤오미·드럼 외교 성공 불구 즉흥 SNS, 자신감 과잉 '1년 중후군' 참모 패스·무오류 착각, 위기 불러 통한 것이다. 여권에선 '외교 천재'라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울 들어 곳곳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북이 핵을 포기하겠다. 군축 협상을 하자"고 했다. 북핵 보유를 인정하는 뜻으로 해석돼 논란을 빚었다. 또 캄보디아의 온라인 사기 범죄 조직을 겨냥해 현지어로 경고 글을 올렸다. 캄보디아 정부가 항의하고 파문이 커져 자뉘게 글을 삭제했다.

한미 훈련과 대북 관계를 놓고는 미국과 빈번하게 이견을 노출했다. 주한 미군 사령관이 사과했다고 발표해 공개 반발을 샀다. 자주과 목소리가 커

지면서 대북 정보 유출 논란도 일었다. 외교관 대신 대통령 변호인과 주변 인사가 줄줄이 기용됐다.

최근엔 이스라엘 비판 글을 SNS에 올려 외교 갈등이 불거졌다. "팔레스타인 아이를 고문한 뒤 지붕에서 떨어뜨렸다"고 했지만 사실과 달랐다. 검증 안 된 즉흥적 SNS로 인한 불필요한 마찰이었다. 참모들도 뒤늦게 알았다고 한다. 이스라엘은 정보·국방·IT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해온 나라다. 미정가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다. 싸워 봐야 국익에 득 될 게 없고 대미 관계만 흔들릴 수 있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사태 수습 대신 "이스라엘에 실망했다"고 반박했다. 핵심 참모가 대통령에게 조기 진화를 건의했지만 통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통령은 매일 최고급 국정 정보를 보고받는다. 그래서 집권 1년이 되면 '내가 다 안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나는 옳다'는 무오류와 성공 확증 편향도 커진다. 참모들 얘기는 흘러들고 국민 여론엔 둔감해진다. 이른바 '1년 중후군'이다.

6·3 선거에서 승리하면 대통령의 독주와 확증 편향은 더 강해질 것이다. 과도한 자신감으로 예기치 못한 외교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 실용·동맹 외교는 후퇴하고 이념·자주파가 전면에서 나설 가능성도 적잖다. 여론의 고질병인 '부정적 대미관(對美觀)'과 '반일 물이'가 되살아날지도 모른다. 지금 실용 외교에 커진 경고음을 흘러들려선 안 된다.

우정아의 아트 스토리 [628]

라부아지에의 빛과 그림자

과학 교과서에서 빠지지 않는 '근대 화학의 아버지' 앙투안 라부아지에와 그의 아내를 그린 부부 초상화이다. 당시 유럽 최고의 화가 자크루이 다비드(Jacques-Louis David·1748~1825)에게 초상화를 의뢰한다는 건 이들의 부와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는 일이었다. 그림 속 라부아지에 부부는 세련된 실내, 고급스런 가구, 정교한 실험기구 가운데서 완벽한 외모를 과시한다. 이들은 실험실의 고독한 연구자이자 나라, 지식과 권력의 중심에 선 근대 사회의 조엘리트다.

라부아지에의 연소를 '산소와의 결합'으로 설명하고 질량 보존법칙을 정립했다. 화학을 중세적 연구술에서 정량적 과학으로 격상시켰다. 그러나 학문적 열정만으로 이 모든 걸 이룰 수는 없는 법. 그는 루이 16세 처차, 정부에서 세금 징수권을 위탁받은 '징세 청부업자'였다. 탁월한 수학적 지식을 빈틈없는 징세에 활용했고, 그렇게 얻은 수입은 안정적인 연구 환경에 쏟아부었다. 거대한 렌즈로 태양빛을 모아 다이아몬드를 태우고, 그 본질이 탄소임을 밝혀낸 과감한

실험을 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는 세상이 변하는 걸 알아차리지는 못했다. 혁명의 시대, 성난 민중의 눈에는 탄소보다 세금이 먼저 들어왔다. 라부아지에의 공포 정치를 피하지 못하고 단두대에서 생을 마감했다. 이후 그의 연구를 정리하고 출판해 후대에 남긴 인물 이 바로 그림 속 아내 마리안이다. 그녀는 처음부터 번역, 도해, 기록을 맡았던 공동 연구자나 다름없었다. 펜을 들고 그녀를 올려다보는 라부아지에의 얼굴에는 어찌된 살아남아 그들의 실험을 역사로 남길 이에 대한 무의식적 예감이 스며 있는지도 모른다.



자크루이 다비드, 라부아지에 부부 초상, 1788년, 캔버스에 유채, 259.7x194.6cm, 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소장.

포스텍 교수·서양미술사

社說

정부 정책이 대통령 휴대폰 문자로 계속 나와야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단계적 폐지 방침을 밝힌 이후 정책적 혼선이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 언급은 1주전자 하더라도 비거주자까지 세금을 감면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보유 공제를 폐지하면 실거주자 세금 부담까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일부 여권 의원들이 장특공제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까지 발의하자 장기 실거주자까지 불안해하고 있다.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20일 야당의 '세금 폭탄' 주장에 대해선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면서 "당에서는 세계 개편을 전혀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 발언은 투기를 겨냥한 것이 실거주자 세계 혜택을 폐지하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세가 쟁점화되는 것을 차단한 것이다. 그러나 장기 실거주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가 어떻게 변경될지에 대해선 민주당이나 정부 모두 구체적 설명을 못 하고 있다.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정책을 발신하기 전에 정부와 청와대, 민주당이 사전에 조율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로 부동산, 설탕 부담금, 생리대 가격 등 민감한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내고 있다. 대통령이 먼저 운을 띄우면 정부와 정당에서 후속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업계에 대해 조사도 하지 않고 "유가 답합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 범죄"라며 석유가격 억제 정책을 시사했고 이는 최고 가격제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최근에는 최고 가격제로 유류 소비가 늘었다는 비판에 대해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정책 선회를 시사했고,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른 시일 내에 종료하는 것이 정당"이라고 했다.

즉흥적이고 거친 표현으로 부작용을 낳은 적도 있다. 이 대통령은 2년전 동영상을 올리고 이것이 최근 이스라엘의 행태인 것처럼 비판했다가 외교 논란을 일으켰다. 한국인들에 대한 범죄 문제를 감보디아 언어로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이라고 올렸다가, 현지 반발로 글을 삭제한 경우도 있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민생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정부 정책이 대통령의 휴대폰 문자로 나오는 일이 잦아지면 정부는 뒷전이 된다. 누구도 원하는 모습이 아닐 것이다.

노동자 사망 사고까지 부른 노란봉투법 갈등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에서 CU 측에 교섭 참여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화물연대 조합원이 대체 차량과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곳곳에서 현장 혼란이 이어지더니 사망 사고까지 난 것이다.

사태의 핵심은 노란봉투법상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둘러싼 대립이다. 화물연대 측은 사망 사고가 노란봉투법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노란봉투법과 시가만 겹쳤을 뿐, 이전부터 상하차 작업을 직접 지시받는 등 실질적인 사용자성이 있기에 원청과 교섭을 주장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는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이다. 그 노란봉투법 내용을 둘러싸고 사망 사고까지 벌어진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날 민주당 의원의 "(화물연대 측은)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해 노란봉투법에 의거해 CU 본사와 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니 사측은 응해야 한다"고 했다. CU 측은 "사용자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인 상황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사용자성을 받아들일 수 없고, 운송사와 배송 기사들과의 계약에 있어 CU는 제3자이기 때문에 교섭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해왔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혼란은 통개로 드러났다. 법 시행 한 달 만에 하청 노조 소속 14만여 명이 368개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

섭을 요구했다. 한 달 만에 전국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단체교섭 거부 시정 요구' 건수는 279건에 달했는데, 지난해 연간 전체 접수 건수와 맞먹는 수치다.

'진짜 사장 나오라'는 하청 노조들의 요구에 기업들은 혼란에 빠져 있다. 포스코와 같은 대기업들도 4개 이상의 노조와 1년 내 협상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법안 간의 충돌 문제도 심각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청에 하청 노동자의 안전 관리 의무를 부과하지만, 이를 위해 현장 통제를 통제하고 지시하는 순간 노란봉투법상 '사용자'로 간주되어 교섭 의무를 지게 된다. 안전을 지키면 노사 분규의 늪에 빠지고, 이를 피하려다 사고가 나면 처벌받는 상황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법을 별다른 논의도 없이 밀어붙일 때부터 나온 우려다.

국무총리는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법적으로 보완돼야 할 상황"이라며 법안의 미비점을 시인했다. 이는 공공기관 노조들의 무분별한 요구에 대한 언급이었지만 일반 기업들이라고 다를 리가 없다. 이번 사고는 법과 제도가 현장의 갈등을 중재하기는 커녕 오히려 갈등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념이 아닌 실용의 자세로 법안의 전면적인 보완에 착수하길 바란다.

10일 만에 귀국 장 대표, '관광객 사진'만 남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박 10일의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원래 일정은 2박 4일이었으나 5박 7일로 늘더니 "미 공황에서 국무부 연락을 받았다"며 20일 돌아온 것이다. 출국에 앞서 제1야당 대표가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왜 미국에 가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는 귀국 기자회견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는 질문에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국무부 차관보의 뒤를쫓은 사진 공개했다. 국무부 차관보급만 30여 명이고 인물과 역할이 모두 알려져 있다. '뒤통수 사진'은 전례를 찾기 어렵고 한국 정당 대표에 대한 예외도 아니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를 위해 방미했다"고 했다. 정부가 대미 외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야당이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방선거의 일부"라는 것이다. 그러나 차관보와 잡

시 만나 무슨 논의를 했겠나. 과거 야당 대표는 장관급 이상을 만나기도 했지만 이번 전정 외중에 방미한 장 대표는 애초 중랑급 인사와 회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장 대표가 만났다는 미국 정치권 인사들도 미국 내 부정선거론에 동조한 인물이거나 한국 소비자 개인 정보를 유출한 쿠방을 옹호한 하원의원이다.

그사이 국힘은 공천과 전략에서 심각한 혼선을 빚었다. 민주당 경계지사 후보는 이미 유세장을 돌고 있는데 국힘은 후보 유력도 잡지 못하고 있다. 시장·군수 후보를 찾지 못하는 지역도 적지 않다고 한다. 전국 곳곳에서 독자 선대위를 꾸리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 대표가 장기간 자리를 비우고 그 뚜렷한 이유도 대지 못하고 있다. 화제가 된 것은 장 대표가 미 의회를 배경으로 김진수 최고위원과 활짝 웃으며 찍은 '관광객 사진' 한 장뿐인 것 같다.

중국 눈치 보다가 대한민국, 해양문명 편에 서야 ... 왜, 이스라엘 때려 이란 펀드나

뉴데일리 newdaily.co.kr

팩스 로마나 속 아르메니아 vs. 팩스 아메리카나 속 한국 대륙 경계에 붙어 있는 지정학적 숙명
균형-혼합-전략적 모호성? 모두 입에 발린 헛소리

■ 페르시아(대륙 문명) vs. 그리스·로마(해양 문명)

요즘 이란 전쟁을 보면 자꾸만 **팩스 로마나** 시대 아르메니아가 떠오른다. 아르메니아는 지정학의 교과서 같았다. **페르시아 문화권**이지만 **그리스 로마 문명**과도 멀지 않았다.

팩스 로마나 시절 지금 이란 땅엔 **파르티아**가 있었다. **파르티아**가 우세하면 **아르메니아**엔 **친파르티아** 정권이 들어섰고, **로마**가 우세하면 **친로마** 정권이 들어섰다. **파르티아**는 친로마적 아르메니아 정권을 좌시하지 않았다. 아르메니아는 외교가 정치였고 정치가 외교였다.

■ 역사는 말한다 ... "중간은 없다"

당시 아르메니아에게 더 절박했던 것은 뭘까. 로마로부터의 독립이었을까, 아니면 **파르티아**로부터의 독립이었을까. 후자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유는 단순하다. **파르티아**는 너무 가까웠던만큼 아르메니아 입장에서 **흡수 및 동화의 압력이 강했**을 테다. 물리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위협도 더 크다.

아르메니아에게 로마 질서는 이질적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더 유리**했을 수 있다. 실의도 컸다. 바로 **안정과 변명**이었다. **팩스 로마나** 속 광대한 교역망을 통해 큰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었다.



▲ 대륙 끝자리에 붙어 사는 우리의 숙명은? 고대부터 끝 없이 이어지는 중국의 속국과 직업이다. 대륙에서 불어오는 황사·미세먼지처럼 차단할 수 없는 운명이다. 고대 그리스-로마 문명(해양)은 페르시아 문명(대륙)과 끝없이 충돌했다. 현대 해양 자유민주주의 문명의 선두 미국도 대륙 전체주의 우두머리 중국과 갈등하고 있다. 바다의 선두 미국은 땅의 수장 중국 제압을 위해 그 동맹 파트너 이란(페르시아)을 차고 있다. 대륙 문명의 수괴 시진핑은 왕이 외교부장을 종-려의 딸이나 김정은에게 보내 진영 단속을 하고 있다. 이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은 느닷없이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때렸다. 친이란-친중국-친대륙 본색을 드러낸 것. 대한민국에 불어닥칠 해양문명의 응징이 걱정된다. © 제미니

하지만 아르메니아는 결국 내부 분열과 외부 경쟁구도를 견뎌내지 못했다. **친로마**와 **친페르시아**로 분열한 채, 권력 투쟁이 반복됐다. 외세는 그 틈새를 파고들었다. 종착지는 변했다. 서기 387년, 로마 제국과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아르메니아를 나눠가졌다. 완중국이 순식간에 강대국 간 흥정 대상이 됐다.

■ 로마=미국=해양 vs. 페르시아=중국=대륙

이 대목에서 기시감이 느껴진다. **해양 이후 한반도를 보는 듯** 해서다. 남쪽은 미국 중심의 자유권 질서에, 북쪽은 중국·소련 중심의 공산권 질서에 편입되었다. 오늘날의 남북한은 단순한 이념 대립의 산물이 아니라, **《아르메니아의 분할》**과 유사한 궤적 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로마는 미국, **페르시아**는 중국으로 치환할 수 있다. 고대로부터 중국은 한국을 자국의 일부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이 중국의 이해와 충돌할 때 가해지는 압박을 보면, **파르티아가 아르메니아의 친로마 노선을 좌시하지 않았던 태도**를 떠올리게 한다.

아르메니아는 여전히 모호하다. 한때는 소련에 편입됐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렇다고 서방도 아니고 중동도 아니다. 강대국 틈새에 놓인 지정학적 완충국인 것이다. 한 번 고착된 구도가 수천 년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 안미경중(安美經中), 양립 불가능한 명제

한국이 한미동맹을 통해 **《전쟁 방지 메커니즘》**을 구축, 산업화와 기적적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은 아르메니아가 **팩스 로마나** 속에서 누렸던 변영과 유사하다. 결정적 차이는, 아르메니아와 달리 한국은 이미 분할된 상태라는 것이다. 이는 경우에 따라 **《한국 패싱》**이 일어날 수 있고, 교섭 대상조차 되지 못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 큰 위험은 따로 있다. **《안미경중(安美經中)》**이란 명제다. 이는 양립 불가능한 선택을 의미한다. 한국을 구조적 함정에 빠트릴 수도 있다. 여기에 한국의 취약점이 더해진다. 바로 **높은 대외의존도와 변동성 큰 금융시장**이다.

한국은 고도로 개방된 경제여서 자본 흐름에 극도로 민감할 수밖에 없다. 전쟁이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말》** 또는 **《신호》**만으로도 자본이 빠져나가고 금융시장이 출렁일 수 있다. 현대의 전장은 **신호와 기대**가 상호작용하는 시장이다. 고대 아르메니아가 겪지 않았던 차원의 위험이다.

■ 전혀 다른 두 문명의 경계

아르메니아를 무너뜨린 결정적 요인은 **외부 침략**이 아니라 **내부 분열**이다. 이는 한국에 큰 교훈을 준다. 문제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한국다운》**, 즉 한국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이다. 정체성이 분명치 못한 민족은 소멸을 피할 수 없다. 반면 정체성이 분명하면, 더 큰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두 나라 사이를 오가는 **《혼합전략》**과 그 **《전략적 모호》**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내부 분열 상태에서 외부 균형에 편승하려는 순간, 그 나라는 교섭의 주체가 아니라 교섭의 대상이 된다.

아르메니아의 사례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이다. 강대국은 주변을 비워두지 않는다. 그 변경엔 잣대를 들이댄다. 지금 한국은 **전혀 다른 두 문명의 변형**에 놓여 있다.

■ 이양승

객원 논설위원 /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newdaily.co.kr) 칼럼으로 2026년 4월 14일 게재 되었습니다.

